

환전소 불법환치기에 칼 겨는 관세청...한달간 집중단속 나서

28일~9월22일까지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단속 관련 규정 개정 적발시 등록취소 등 제재 강화 “민생경제 침해 통로 제거하고 국부유출 방지”

세관당국이 국부유출, 범죄자금 세탁 등에 활용되는 불법환전소에 칼을 빼들었다. 관세청은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28일 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계도 중심의 단속을 진행했으나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있다고 판단돼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이번 집중단속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하고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집중 중

점 점검에 나선다. 주요 단속사항은 ▲환전거래내역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조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정기보고 의무 위반 등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이나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라 환전영업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금액, 환율, 일자, 거래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동일자·동일인은 미화 4000불 이하로 거래가 제한된다. 반기별 환전장부(환전거래내역)의 관세청 제출도 의무다.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실효성 낮은 제재 수단이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지난 24일 이미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법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했다.

또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 반복 미제출 시 등록취소까지 가능토록 했다.

한 국장은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환치기를 한 행위가 환전영업자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해 등록취소 등 적극적 제재를 못해 환치기로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또한 환전장부 미제출은 과태료 부과에 그쳐 환전영업자들이 지속·반복적으로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환전액의 20%인 20억달러가 환전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거래 폭



가상자산 활용한 해외 불법송금 사례. 이 커져 올해는 8월 기준 38억달러에 이른 다. 한 국장은 “불법 환전소는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유통 통로가 되고 있고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불법 환전 영업자 처벌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유나기자



가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광화문 글판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교보빌딩 외벽에 신달자 시인의 '가을 들의 문구로 새 단장한 광화문글판 가을편이 게시되어 있다. 이번 문안은 가을 들만큼 살아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서이초 교사 개인번호 통화, 착신전환 추정”

‘학부모 직업이 수사 영향’ 주장에 “매우 유감”

서이초등학교 교사 극단선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감질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가 고인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먼저 전화를 건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번호로 전화가 왔다는 유족 및 동료 교사의 진술이 있어 고인의 아이폰드 포렌식 등으로 확인한 결과, 학부모가 학교로 전화를 걸었는데 개인번호로 송출된 내역이 있다”며 “착신번호가 개인번호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사망 교사 A씨의 개인 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A씨는 휴대전화 한 대에 업무용과 개인용 등 전화번호 2개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이 해당 학부모의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연필 사건 직후 이틀가량 이들 사이 통화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대화 내역이 수회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인된 통화 내역은 A씨가 먼저 학부모에게 건 전화였다는 게 그간 경찰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법률대리인 등은 개인번호 통화 내역이 있다며 수사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경찰은 학교 번호가 A씨의 개인번호로 착신 전환 설정돼 있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A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기기는 아이폰이라 포렌식이 불가능해 추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또 감질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의 직업이 현재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라는 점에서 ‘감짜기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직업은 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개인정보”라며 “수사에 영향을 일부 미쳤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 등에서 경찰이 지난해 서이초에서 발생한 다른 학폭 사건까지 조사하는 등 몰타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폭넓게 (조사)해달라는 유족 측 요청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개시된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서울 내 흉기 소지 등으로 총 40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 2명을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뉴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